

# “청년창업농에 농지임대 지원 확대해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발전방안 농민단체 토론회  
광주·전남 2030지원 2018년 23.2%서 지난해 18.94%  
최근 농지은행 지원 농지 면적 증가에도 청년지원은 부진

광주·전남지역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은행 지원 면적 비율이 2년 연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전문가들은 미래 농업을 담당할 청년 창업농에게 농지임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농지은행 지원면적은 총 3168.54ha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9~39세 청년 농업인에 지원한 면적은 13.6%에 해당하는 379.62ha를 차지했다.

광주·전남 청년 농업인에 대한 농지은행 지원 면적 비율은 지난 2017년 이후 2년째 감소하는 추세다.

20~30세대 지원 비율은 2017년 23.77%(975.27ha), 2018년 23.2%(704.23ha), 2019년 18.94%(1214.49ha)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청년 농업인이 농지은행 사업 지원을 받은 건수는 2017년 703건, 2018년 746건, 2019년 1305건, 2020년 6월 말 559건 등 총 3313건이다.

농지은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1990년부터 시행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지 규모화(매매) ▲과원 규모화(매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고령 농업인 대상 농지연금 지급 ▲경

영이양 직접지불(1ha당 25만원) ▲농지임대 수탁사업 등이 있다.

올해 들어 청년에게 지원된 농지은행 사업을 부문별로 보면 '임대수탁'이 202.33ha(367건)로 절반 이상(53.3%)을 차지했고 ▲공공임대용 농지임대 89.53ha(84건) ▲농지임대차 50.66ha(44건) ▲농지매매 37.1ha(6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만 40세 이상 농업인에 지원된 면적 2788.92ha 중에서는 임대수탁(2570.88ha)이 9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농지임대차(105.54ha), 농지매매(63.68ha), 공공임대용 농지임대(48.82ha) 순이었다.

전남본부가 최근 5년 동안 농지은행 사업으로 지원한 경영농지 면적은 2014년 2891.54ha, 2015년 2836.03ha, 2016년 3465.78ha, 2017년 4103.02ha, 2018년 3035.83ha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지원 면적은 6411.76ha로 전년 지원 면적의 2배(111.2% ↑)를 넘겼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9일 농민단체 토론회를 열고 농지은행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 9일 개최한 '농민단체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농지은행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있다. <농어촌공사 제공>

한국전농협중앙연합회 등 7개 농민단체 사무총장을 비롯, 학계관련 전문가와 공사 농지은행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공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식량안보 등 국민의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지의 공익적 요소가 주목받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은행 사업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김정호(사)환경농업연구위원장은 "농지은행의 성과와 발전방안" 주제발표를 하며 청년창업농 농지임대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농지비축사업 이외의 경영회생 판매포기농지, 농지연금 만료 농지 등에 청년창업농 등의 수요가 있는 농지는 매각하지 않고 공사가 비축농지로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

했다. 또 "휴경농지를 조사해 청년창업농 등의 수요가 있는 농지에 대해 우량농지로 기반정비한 후 임대해야 한다"며 "후계자 없이 사망하게 된 농가의 농지·농장을 상속인에게 일괄 매입 또는 임차해 청년창업농에게 일괄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식 경성대 교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지난해 11월 기준 전남지역 공공임대용 농지는 1117ha로, 전국 임대용 농지(7123ha)의 1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전남지역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공공임대용 농지 분포 비율(15.7%)과 귀농인구 비율(16.9%·1만 1270명) 차이는 1.2%포인트 정도"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우리농산물, 15% 할인받고 구매해요”

aT, 온라인 기획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오는 8월 말까지 옥선, G마켓 등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7개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 농산물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오랫따차 우리 농산물'이라는 이름으로 마련됐다.

aT에 따르면 기획전을 시작한 지난 6월 한 달 간 쿠팡, 11번가가 올린 매출은 42억원에 달했다.

이달에는 옥선, G마켓에서 300여 개 농가가 우수 상품을 선보인다.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오미자, 더덕, 수박, 참외 등

특산물과 제철 과일이 최대 15% 저렴한 가격에 선보여진다. 오는 8월에는 위메프, 티몬, 인더파크를 통해 한 달간 전용 기획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aT와 기획전 참여 온라인 쇼핑몰은 할인쿠폰 발행, 판매수수료 할인, 상품 상세 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한다.

운영배 aT 농식품거래소 본부장은 "6월 첫 기획전의 성공세를 이어 7월, 8월에도 지역농산물의 온라인 판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온라인 기반 농식품 유통채널을 새롭게 이끌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오매향' 애플망고 인기 농협 전남지역본부 아열대브랜드 '오매향' 애플망고를 생산하는 영광 한 농장에서 대형 유통매장 구매 담당자(바이어)와 생산자가 계약협의를 하고 있다. 전남본부는 애플망고가 출시 초기부터 백화점 VIP고객용 사은품으로 지정되고 7월 사전 발주량이 조기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 쌀 가격 하락 정부가 막는다... “초과생산량 3% 이상 매입”

미국 수급안정대책 수립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매해 10월 15일까지 미국 수급안정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 시행하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맞춰 쌀 수급안정장치 운영을 위한 세부 기준안을 최근 공개했다.

지난 5월 공익직불제가 도입되고 변동직불제가 폐지되면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벼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쌀 수급관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년 10월 15일까지 미국 수급안정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세부 사항

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변동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 간 차액의 85%를 지원한다.

이번에 마련한 '양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미국 매입의 일반적 기준과 재배면적 조정 절차를,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은 미국 매입·판매의 세부 기준, 생산량·수요량 추정 방식, 협의기구 운영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라 작황이 좋아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전체 생산량의 3% 이상인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량 범위에서 사들일 수 있다.

초과생산량이 3% 미만이어도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미국을 매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연속된 공급 과잉으로 민간 재고가 누적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수급안정조치를 취한다.

민간 재고 부족 등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면 정부가 보유한 미국을 판매할 수 있다.

다만, 3분기(9월) 연속으로 가격

이 1% 이상 상승할 때는 가격 상승 폭이 크고 앞으로도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부 보유 미국을 판매한다.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미국을 매입하는 경우 직불금 대상자에게 재배면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대상 면적, 조정 방법 등은 생산자 단체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수급안정대책 수립, 재배면적 조정 등의 주요 사항은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를 마쳤고, 고시 제정안은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추진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 송정농협, 농업인에 여름용 마스크 8만장 배부

1인당 50매씩 두 번째 지급

광주 송정농협은 지난 8일 지역 농업인 1600명에 여름용 마스크 8만 장을 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스크는 1인당 50매씩 지급됐다. 올해 초 수제 마스크 8000 장을 무상 지원한 뒤 이번이 두 번째 전달이다.

김형덕 조합장은 "광주지역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농업인 조합원에게 여름용 마스크를 무상 지원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